



FIP-2009-0015 (통권 제139호, 2009. 07. 01)

# 청년니트(NEET) 해부

– 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 –

ISSUE  
PAPER



## Contents

### < 요약 >

I. 검토 배경 .....	1
II. 청년니트 현황 .....	3
1. 청년니트족 개념 및 규모 .....	3
2. 청년니트 현황 .....	5
III. 청년니트 양산의 원인 .....	8
1. 구직자 개인의 전략적 선택 결과 .....	8
2.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구직자의 대응 미흡 .....	9
IV. 청년니트 확대의 파급영향 .....	14
1. 사회적 비용 증대 및 국가경쟁력 약화 .....	14
2. 학교교육과 직업교육간 불일치로 숙련 노동인력 상실 .....	14
3. 미래 증산층 붕괴 및 빈곤문제 야기 .....	16
V. 정책대응 방향 .....	18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노사정책팀 손훈정 과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229    FAX : 6234-5270    E-mail : beagle@fki.or.kr

## 1. 검토 배경

- 청년실업률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청년실업률만으로는 청년층의 고용악화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
-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청년NEET족'이라는 용어 등장
- 국내 노동시장의 청년니트족 규모와 니트족 발생 원인, 노동시장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현황에 적합한 청년층 고용대책의 방향 모색이 필요

## 2. 청년니트 현황

-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15~29세 청년 중 취업자와 학생, 주부 등을 제외한 계층으로, 경활·비경활 양쪽 모두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니트족은 '08년 상반기에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공식 청년실업자 32.8만명의 세 배 이상에 달함
- 실업률 대비 니트율은 대졸자 3.1배, 고졸 2.5배, 전문대졸 2.3배 순으로 나타나, 대졸자들의 경우 실업상태를 받아들이기보다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줌

## 3. 청년니트 양산의 원인

- 전문대졸 취업률이 4년제 대졸자보다 높지만, 질 좋은 일자리의 취업률은 4년제 대졸자가 더 높기 때문에 청년니트족은 '학업 기간을 늘려 취업 시기를 뒤로 미루는' 구직 전략을 선택
-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 및 고임금 등 현 노동시장의 구조도 상당수 청년구직자들을 니트 상태에 빠지게 함

● ● ● 요약 ● ● ●

- 청년구직자들이 현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존의 취업 전략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청년니트족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

구 분	주요 내용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9세 생산가능 인구에서 대학재학 이상 인구비중 73.3%('08년)</li> <li>• 대기업 일자리는 10년(1997~2007년) 사이 106만개 감소</li> <li>• 전산업 취업계수 : '95년 14.8(명/10억원) → '05년 8.7</li> </ul>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고학력자를 유인하기 어려움</li> <li>• 특히 '08년 현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93.9%를 고용하고 있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 비정규직 = 고용불안」으로 인식</li> </ul>
정규직 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 과보호로 노동이동성이 낮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움</li> <li>• 비정규직 경험이 향후 구직과정에서 낙인이 될 수 있어 청년구직자들은 니트 아니면 정규직이라는 극한을 선택</li> </ul>
기대임금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니트족이 취업을 유예하며 구직비용을 높인 결과 기대임금 수준 상승</li> <li>• '07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취업시 받고자 하는 연봉은 평균 2,949만원으로, 대졸 4년차 근로자들이 받는 연봉('06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li> </ul>

#### 4. 청년니트 확대의 파급영향

- 청년니트족 증대는 근로소득 과세대상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 고용정책 예산투입 확대, 청년니트족의 빈곤층 전략시 사회복지예산 증대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됨
-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현상이 만성화되면 고졸 이하 인력이나 실업계고 출신 기능인력이 해당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기업은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재실시해야 하므로 교육 투자비용 낭비 초래
- 고학력자의 니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빈곤계층 자녀도 니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및 미래 증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 큼

## 5. 정책대응 방향

### □ 노동시장 구조 개혁

- 청년니트율이 실업률의 2~3배에 달하는 현상은,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근로자 일부에게 국한된 고용안정성이나 생산성 초과 고임금 구조 등이 해소되어야 청년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일치 현상(구인-구직 불일치, 기대임금 불일치 등)도 해결 가능
-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직 등 고용 안정성도 낮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강화
- 학교교육과 직업·직무 교육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이나 학벌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텃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교육체계 개혁 필요

### □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강화

-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다양한 고용 정책을 수립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고학력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함

## I. 검토 배경

- '09.5월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40.4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93.8만명의 43.1%
- 청년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09.3월에 8.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09.5월 현재 전체 실업률의 2.3배인 7.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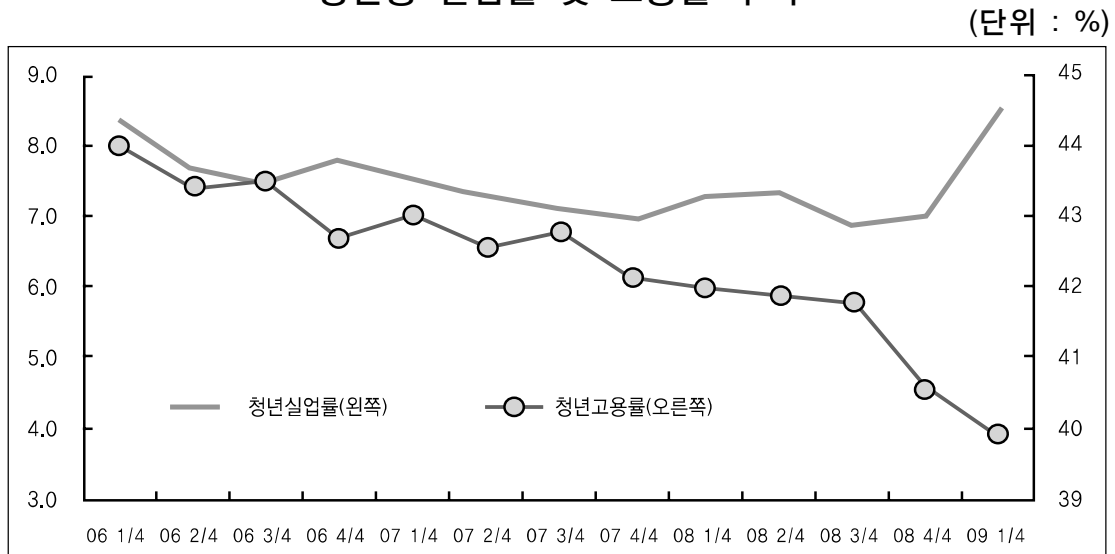
< 청년 실업자 수 및 청년실업률 추이 >

구분	청년 실업자 수 (천명)	(A)청년실업률 (%)	전체 실업자 수(천명)	(B)전체 실업률 (%)	A/B
2004년	412	8.3	860	3.7	(2.2)
2005년	387	8.0	887	3.7	(2.2)
2006년	364	7.9	827	3.5	(2.3)
2007년	328	7.2	783	3.2	(2.3)
2008년	315	7.2	769	3.2	(2.3)
2009.1월	356	8.2	848	3.6	(2.3)
2월	372	8.7	924	3.9	(2.2)
3월	375	8.8	952	4.0	(2.2)
4월	348	8.0	933	3.8	(2.1)
5월	404	7.6	938	3.8	(2.3)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악화 상황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률보다 더욱 심각
- 청년실업률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청년실업률만으로 청년층의 고용악화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움

< 청년층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



\*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07년 기준 7.2%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용률도 4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고용 상황이 선진국보다 좋다고 보기 어려움

< 주요 국가 청년고용 현황('07년) >

(단위 :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OECD 평균
실업률	7.2	10.9	6.7	10.5	8.2	13.1	9.6
고용률	42.7	55.2	55.6	64.4	62.3	58.4	54.4

\* 자료 : OECD,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로 '청년NEET족<sup>1)</sup>' 용어 등장
  -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의 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준비', '구직단념', '쉬었음' 등의 상태에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광범위하게 존재
  - 이렇게 실업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준비에 머무는 청년들을 '청년니트(NEET)족'으로 지칭
- 국내 노동시장의 청년니트족 규모와 니트족 발생 원인, 노동시장 파급 영향 등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현황에 적합한 청년층 고용대책의 방향 모색 필요

1) •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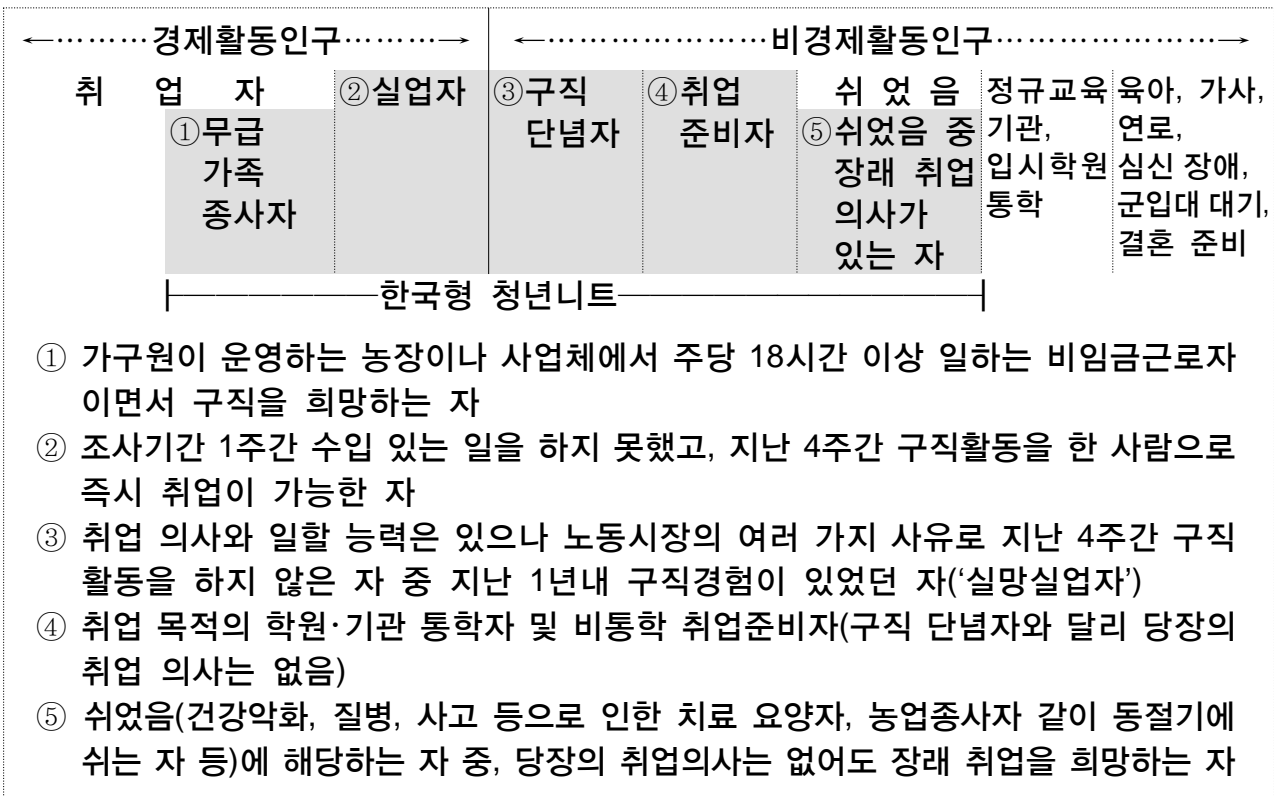
- '99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선진국에서 청년고용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의 보조 개념으로 사용
- 일본 정부도 '04년부터 청년니트족 공식통계 발표(후생노동성)
  - 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자로 '03년에 52만명 정도로 추산
  - 일본형 니트족은 빈번한 취업 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상태로 통상 부모에게 생계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많은 청년계층을 의미

## II. 청년니트 현황

### 1. 청년니트족 개념 및 규모

-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15~29세 인구 중 취업자와 학생, 주부 등을 제외한 계층<sup>2)</sup>으로, 경활·비경활 양쪽 모두에 걸쳐 청년니트족이 광범위하게 분포
- 우리나라는 고시·공시생이나 자영업 무급종사자 등의 비중이 큰 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니트족 개념<sup>3)</sup>이 필요
-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을 포함

< 한국형 청년니트의 범위 >



2) 한국형 청년니트족 정의와 분류 등은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노동부,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연구용역, 2008. 1)을 따름  
 3) 국가마다 노동시장구조나 청년고용 상황이 달라 ‘청년니트족’ 정의가 조금씩 다르며, 일본은 비경제활동 인구 속에 니트족을 포함시킴

-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청년층 졸업·중퇴자는 '08년 5월 현재 497.5만명<sup>4)</sup>
  - 청년층 전체 고용률은 42.3%이며, 이중 비경제활동인구인 재학생과 휴학생을 제외하면 고용률이 69.8%로 증가
  - '08년 5월 현재 청년층 졸업·중퇴자 중에서 실업자(26.5만명)와 비경제활동인구(123.9만명)는 150.4만명 규모

<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분포 >

(단위 : 천명, %)

구 분	청년층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청년층 전체	9,821	4,461	4,154	307	5,360	42.3	6.9
졸업/중퇴	4,975	3,737	3,471	265	1,239	69.8	7.1

\* 자료 : 통계청, 2008년 5월 실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 2008. 7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니트족은 '08년 상반기에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실업자나 구직단념자 등 청년 취업애로층과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면서도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감안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며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청년니트족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sup>5)</sup>
    - 정부는 '08년 청년실업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 상태를 취업준비, 구직단념, 쉬었음 등으로 응답한 청년들을 청년 취업애로층으로 분류
    - '08년 상반기 현재 청년 취업애로층이 108.2만명이고, 여기에 취업자로 분류된 '무급가족종사자(4.9만명)'를 합치면 청년니트족은 113.1만명 규모

< 청년 취업애로층 추이 >

(단위 : 천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8 상반기
실업자(A)	401	412	387	364	328	328
구직단념자(B)	31	30	32	33	30	32
취업준비자(C)	268	297	351	413	417	477
쉬었음(D)	225	258	278	258	245	245
<b>취업애로층(A+B+C+D)</b>	<b>925</b>	<b>997</b>	<b>1,048</b>	<b>1,068</b>	<b>1,020</b>	<b>1,082</b>

\* 자료 : 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2008. 8. 29

4)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상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청년층, 고령층) 부가조사」(2008. 7월 발표 기준)를 토대로 함  
 5) 그러나 '청년니트'의 정의나 해석이 연구자별로 조금씩 다르고, 청년 개개인의 명확한 구직의사나 구직노력, 취업애로에 대한 '체감' 등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2. 청년니트 현황

청년니트 현황은 본회가 성균관대 HRD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분석<sup>6)</sup>

[ 기초 데이터 ]

- 대졸·전문대졸 니트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sup>7)</sup>」
- 고졸자 니트 현황 : 성균관대학교 HRD센터의 「청년층 일자리 실태조사(YWS)<sup>8)</sup>」

-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니트율(23.01%)과 실업률(9.03%)이 제일 높게 나타남
  - 학력별 니트율은 고졸 23.01%, 대졸 13.91%, 전문대졸 12.58% 순이며, 실업률은 고졸 9.03%, 전문대졸 5.49%, 대졸 4.54% 순으로 나타남
  - 실업률 대비 니트율은 대졸자 3.1배, 고졸 2.5배, 전문대졸 2.3배 순으로, 대졸자들의 경우 자신이 실업상태임을 수용하기보다는 아예 취업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으로 보여줌

< 학력별 니트율 및 실업률 >

구 분	니트율 (%)	실업률 (%)	니트/실업(배)
고등학교졸	23.01	9.03	2.5
전문대졸	12.58	5.49	2.3
4년제 대졸	13.91	4.54	3.1

\* 주 : 1) 니트율 = (한국형 청년니트 해당자 수) ÷ (전체 청년인구 수)  
 2) 실업률 = (청년실업자 수) ÷ (청년실업자 수 + 청년취업자 수)

\*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 전공별로는 고졸, 전문대졸 모두 인문계열 전공에서 니트율이 높고, 4년제 대졸자의 전공별 니트율은 교육(17.34%), 사회(16.84%), 인문(15.65%) 순

6)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7) 한국고용정보원의 GOMS(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는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졸업자의 약 5%를 선정하여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04. 8월 졸업생과 '05. 2월 졸업생

[조사시기] (1차년도) '06. 10월~12월, (2차년도) '07년 9월~10월 조사 실시

[조사내용]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가계배경 등

8) 성균관대 HRD센터가 GOMS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YWS : Youth Works Survey)를 구축하여 조사

[조사시기] '08.11.24~'09.1.5 <6주간>

[조사방법]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병행 (4:1 비율)

[조사대상] 전국 18~29세 고졸자 중 대학 미진학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함. 샘플 설계시 모집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05년 지역별 학교현황 데이터(16개 시도 인문계·실업계 졸업자 수 등)를 이용하여 표본 산출

[조사내용] 조사대상자 개인별 특성, 학교정보, 구직활동, 구직과정, 현 경제활동, 현 직장 및 첫 직장에 대한 정보 등

< 학력·전공별 니트율 및 실업률 >

구 분	전공/계열	니트율 (%)	실업률 (%)	니트/실업 (배)
고등학교졸	인 문	25.74	8.94	2.9
	실 업	19.07	9.15	2.1
전문대졸	인 문	14.74	6.69	2.2
	사 회	13.73	5.80	2.4
	교 육	6.13	1.29	4.8
	공 학	13.02	5.83	2.2
	자 연	13.95	6.22	2.2
	의 약	8.26	2.99	2.8
	예 체능	13.51	6.34	2.1
4년제 대졸	인 문	15.65	4.99	3.1
	사 회	16.84	4.72	3.6
	교 육	17.34	2.99	5.8
	공 학	10.97	4.38	2.5
	자 연	15.17	6.05	2.5
	의 약	5.85	1.40	4.2
	예 체능	10.82	4.20	2.6

\*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 일자리 선택시 고학력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나 ‘직업 미래전망’을 중시해, 청년니트 상황이 일자리의 양적 확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 고졸자의 경우 급여수준과 직장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전문대졸 이상은 개인의 발전가능성이나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을 중시

< 일자리 선택 기준 >

구 분	고졸 실업계	고졸 인문계	전문대졸	대졸	4년제 TOP10*	4년제 서울내*
급여	4.40	4.47	4.23	4.08	4.03	3.99
직장(고용) 안정성	4.50	4.53	4.29	4.16	4.09	4.06
회사 규모	3.66	3.81	3.56	3.53	3.61	3.56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3.59	3.73	3.76	3.85	3.89	3.89
업무 내용	3.97	4.20	3.99	4.04	4.09	4.10
개인의 발전 가능성	4.20	4.36	4.29	4.31	4.36	4.38
직업 자체의 미래전망	4.30	4.36	4.27	4.24	4.25	4.24
근로 시간	4.05	4.13	3.94	3.72	3.63	3.61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4.25	4.32	4.11	3.93	3.85	3.83
출퇴근 거리	3.91	4.00	3.72	3.48	3.40	3.39

\* 주 : 1) 전혀 중요치 않음 - 중요치 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중요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5점 만점)  
 2) <Top 10> 중앙일보 '06년 평가 상위 10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인하대(포항공대와 카이스트는 표본에서 제외))  
 3) <서울내> 서울권역 소재 4년제 대학

\*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 공통적으로 ‘취업 준비중’이 니트 상태의 가장 큰 사유이나, ‘학업기간 연장’을 통해 취업 시기를 뒤로 미루는 현상도 니트 확산의 주요 원인
  -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중’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의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됨
  - 고졸자의 경우 ‘일하고 싶지 않아서(12.4%)’와 ‘진학준비(12.4%)’가 ‘취업 준비중(30.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구직 의지가 전문대졸 이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석됨
  - 전문대졸자는 ‘취업 준비중(45.7%)’ 다음 순위로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3.8%)’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 구직 눈높이가 높은 것이 니트 상태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4년제 대졸자는 ‘대학·대학원 진학(16.4%)’이 ‘원하는 임금·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2%)’보다 높게 나타나, 몸값을 높이거나 취업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취업 시기가 뒤로 미루어지고 있음

< 청년니트 사유에 관한 응답비중 >

(단위 : %)

청년니트 사유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b>취업을 위해 준비 중</b>	<b>30.7</b>	<b>45.7</b>	<b>49.2</b>
<b>상급학교 진학 준비</b>	<b>12.4*</b>	9.3	<b>16.4</b>
<b>원하는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b>	11.5	<b>13.8</b>	8.2
<b>일하고 싶지 않아서</b>	<b>12.4</b>	1.2	0.9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6	3.6	0.9
육아 및 가사	6.3	7.1	2.8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5.2	4.1	1.3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6	4.9	6.8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6	1.2	0.5
심신피로	1.7	1.0	2.1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0.7	1.4	0.8
기타	6.3	6.7	10.1

\* 주 : 1) 조사대상 모집단 규모가 달라 응답 비중으로 처리

2) \*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에 통학은 하고 있지 않은 자

\*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 Ⅲ. 청년니트 양산의 원인

#### 1. 구직자 개인의 전략적 선택 결과

- ‘학업기간을 연장하여 취업 시기를 뒤로 미루는’ 청년층의 구직 전략 때문에 청년니트족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에 일찍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취업 자체는 용이할 수 있으나 취업 후 대우(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 대부분이 조기취업보다는 학업 연장이라는 전략을 선택
  - 학력이 곧 빈곤문제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여건상, ‘학업 연장 및 취업 유예’라는 청년층의 구직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 중졸 미만의 저학력 계층 중에서 근로빈곤층<sup>9)</sup> 규모는 51.4%로 나타나, EU 평균 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
    -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07년에 156만명이며, '09년도 경제성장률이 -4%이면 최대 242만명, 2% 경제성장률을 달성해도 195만명에 이를 전망<sup>10)</sup>

#### < 교육 수준별 근로빈곤층 분포 >

(단위 : %)

구 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EU 15개국		12	5	3
한국	경활 빈곤층	51.4	13.9	3.7
	임 금 빈곤층	43.1	10.5	2.2
	비임금 빈곤층	56.4	13.8	3.6

\* 자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 2005

- 전문대졸 취업률이 4년제 대졸자보다 높지만 질 좋은 일자리 취업률은 4년제 대졸자가 더 높아, 학업 연장을 선호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
- 전문대졸 취업률이 82.8%로 4년제 대졸자 취업률 77%보다 높지만, 대기업 취업이나 소득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모두 4년제 대졸자보다 뒤짐

9)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으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 비근로 빈곤층은 스스로 無業을 택해 빈곤에 빠진 만큼 빈곤 원인이 개인에게 귀착되지만,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 빠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

10) 변용찬,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9. 5

< 실제 취업 현황 및 취업 후 임금소득 >

구분	졸업자 수 <sup>1)</sup>	취업률 <sup>2)</sup>	대기업 취업률 <sup>3)</sup>	월평균 소득 <sup>4)</sup>
전문대학	228,336명	82.8%	17.5%	158.0만원
4년제 대학	268,833명	77.0%	27.4%	180.5만원

- \* 주 : 1) 졸업자 수(명) :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일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수  
 2) 취업률(%) : 졸업 후 2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  
 (취업자 수 추정값 ÷ 졸업자 수 추정값 × 100)  
 3) 대기업 취업률(%) : 취업자 중 일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비율  
 4) 월평균 소득(만원) : 임금근로자의 경우 세금과 상여금, 비임금근로자는 세금이 포함된 소득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임금 수준도 기업 규모에 비례하고 동일 기업규모 내에서도 학력·학벌에 따라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이 학업 연장을 선호하도록 유도

< 기업 규모 및 졸업학교 유형별 월평균 임금 >

(단위 : 만원)

기업 규모	전문대졸	4년제 대졸	4년제 TOP 10	4년제 서울내
1~4명	117.04	123.24	126.91	121.14
5~9명	122.76	140.21	159.73	147.61
10~29명	136.11	163.83	183.75	174.87
30~49명	140.90	174.06	191.32	184.49
50~99명	141.17	176.27	193.05	186.02
100~299명	148.81	185.16	206.49	201.66
300~499명	156.23	191.98	218.93	213.36
500~999명	156.95	192.26	232.27	221.65
1,000명 이상	186.32	227.26	246.11	244.54

- \* 주 : 1) 근무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  
 2)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월평균 환산소득. 임금 분포에서 이상치(Outlier)라고 판단되는 상하위 1%를 제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 2.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구직자의 대응 미흡

- 현 노동시장 구조가 상당수의 고학력 청년구직자를 니트 상태에 빠지게 함
  -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와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감소 등도 청년구직자를 니트 상태에 빠뜨리는 원인
  - 청년구직자들이 현 노동시장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존의 취업전략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청년니트족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
  - 반면, 고학력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구직을 하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저학력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구축(驅逐)되는 부작용 발생



-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청년구직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취업을 유예하고 학업을 연장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구조상 이를 수용하기 어려움
  - 대학진학률이 '90년 33.2%에서 '08년 83.8%로 급등하고, 20~29세 생산가능 인구에서 대학재학 이상 인구비중이 '08년에 73.3%에 달하는 실정

**< 대학 재학 및 졸업 청년층 인구 추이 >**

(단위 : 만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인원수(만명)	460.4	471.1	480.1	483.9
구 성 비(%)	67.0	69.9	72.2	73.3

\* 주 : 구성비는 20~29세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08년은 1~5월 기준

\* 자료 : 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2008

- 그러나, 전 산업 취업계수<sup>11)</sup>가 '95년 14.8(명/10억원)에서 '05년 8.7로 급락해 고용 없는 성장이 만성화되고 있음
-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30대 그룹 총근로자 수는 '07년 기준 82만 3,167명으로 '07년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수 1,597만명의 5.2%에 불과

-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저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만 대기업보다 임금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고학력자를 유인하기 어려움
  - 전체 사업체의 99.9%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88.4%를 만들었고,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288만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106만개 줄어든 것<sup>12)</sup>으로 나타남
  - 구직자들은 임금이 많고 고용안정성이 강한 대기업·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다투는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림

**< 기업 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

구 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인력부족률(%)	3.4	2.4	2.0	1.7	1.0
주요사유	'취업지원자 없음'			'직무능력 갖춘 지원자 없음'	

\*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원 + 부족인원)

\* 자료 : 노동부, 2008년 하반기 인력수요동향 조사, 2008. 12

11) '05년 불변가격 기준. 산출액 10억원당 소요 취업자 수 [취업자수(명) ÷ 산출액(10억원)], 한국은행 자료

12) 중소기업중앙회, '07년 기준 중소기업 위상 지표, 2009. 5

- 특히 '08년 현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93.9%를 고용하고 있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의 고용 상황을 불안(중소기업 일자리 = 비정규직 = 고용불안)하게 보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기업보다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 무엇보다 '개인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고학력자의 구직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청년층 고학력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큼
- 대기업의 빠른 임금 증가율<sup>13)</sup> 때문에 정규직 기준 대·중소기업간 시간당 임금격차가 100 : 66 수준으로 벌어짐

<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08년 기준) >

구 분	시간당 정액급여(원)	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직=100	중소기업 정규직=100	중소기업 비정규직=100
대기업 정규직	16,607	100	130	151	228
대기업 비정규직	12,743	77	100	116	175
중기 정규직	11,010	66	86	100	151
중기 비정규직	7,289	44	57	66	100

\*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2009. 3

- [정규직 과보호로 노동시장 왜곡] 고용구조상 중소기업, 자영업, 비정규직 등의 비중이 높지만, 대다수 구직자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소수 대기업 정규직 선호
- 청년구직자들이 찾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는 전체 일자리의 일부분이며 그 수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선호 일자리수의 변동 추이 >

(단위 : 만명)

구 분	1995	1998	2000	2002	2004	2006
300인 이상 대기업	251.1	204.1	163.7	178.4	187.0	191.7
공 무 원	87.1	84.4	83.7	86.9	91.9	90.5
금 융 업	71.1	66.3	61.4	63.3	58.3	62.0

\* 자료 : 정부, 청년고용대책, 2008. 8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며,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08년 현재 31.3%로 미국의 약 5배, 일본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 비정규직의 경우 '09. 3월 현재 537.4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3.4%를 차지

13) 1986~2006년간 10~29인 기업의 임금상승률이 559%인 반면, 500인 이상 기업은 892%에 달함(노동연구원 통계) 10~29인 559%, 30~99인 607%, 100~299인 682%, 300~499인 701%, 500인 이상 892%

< 주요국 노동시장 구조 >

(단위 : %)

구분	한국('08)	일본('07)	독일	프랑스('07)	미국	대만('07)
임금근로자	63.3	86.1	88.1 ('07)	89.2	92.8 ('07)	75.1
자영업자	25.3	7.1	10.1 ('04)	5.8	7.3 ('04)	13.6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통계

- 이런 고용구조에도 불구하고 청년구직자들이 선뜻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정규직 과보호로 인한 낮은 노동이동성에 있음
- 실업자 중에서 1년 후에 정규직이 되는 비중은 75.6%인 반면 비정규직 중에서 1년 후 정규직이 되는 비중은 44.3%로 나타남
- 비정규직보다 오히려 실업자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과, 비정규직 경험이 향후 구직과정에서 낙인이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청년구직자들은 닛트 아니면 정규직이라는 극한을 선택

< 임금근로자 기준 노동이동성 추이 >

(단위 : %)

최초고용 형태	1년후			3년후			4년후		
	정규	비정규	실업자	정규	비정규	실업자	정규	비정규	실업자
정규직	94.8	4.9	0.3	91.6	8.1	0.3	91.3	8.5	0.9
비정규직	44.3	55.0	0.7	59.5	40.2	0.3	64.8	35.0	0.1
실업자	75.6	22.4	2.0	83.3	15.6	1.1	84.8	15.2	0.6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소득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2006. 8

- 일부 금융관련 업종이나 소수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에 국한된 높은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이 노동시장 전체를 왜곡시키고 청년층의 구직 활동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부작용 초래
- 특히 대기업 정규직은 기업복지와 국가복지의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보다 더 낮은 모순 등도 노동시장 왜곡 가속화

< '08년 8월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직	77.3	78.0	65.8
비정규직	39.0	41.5	39.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08. 8

- [구인·구직 간 기대임금 격차] 청년니트족이 취업을 유예하며 구직비용을 높인 결과 기대임금 수준이 높아져 노동시장 현실과 괴리
  -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유보임금<sup>14)</sup> 간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어, 노동시장 변화를 청년 구직자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전문대졸과 4년제졸의 2002년 유보임금 충족률은 각각 81.9%, 86.1%이었으나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충족률이 61.6%, 74.6%로 더욱 하락
  - 특히 '07년에 4년제 대졸자가 취업시 받고자 하는 연봉이 평균 2,949만원<sup>15)</sup>인데, 이는 대졸 4년차 근로자가 받는 연봉('06년 기준)과 비슷

< 유보임금과 실제임금 격차 >

(단위 : 만원/年, %)

구 분 (만원/年)	유보임금(A)	실제임금(B)	충족률(B/A)	
<전문대졸>	2002	1,459	1,196	81.9
	2007	2,623	1,617	61.6
<4년제졸>	2002	2,004	1,726	86.1
	2007	2,949	2,199	74.6

\* 자료 : 한국은행,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2009. 2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2,000~2,500만원대이나 대학생의 희망 대졸초임은 2,500~3,000만원대로 나타나, 중소기업 현실과 대학생의 눈높이 간 격차가 심각<sup>16)</sup>한 상황임

14)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 고용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

15) 한국고용정보원 '07년 11월 조사결과(전국 4년제 대학생 6,417명 대상)

16) 대한상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미스매치 실태조사, 2009. 3 중소기업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2,000~2,500만원'이 6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는 4.4%에 불과. 그러나 대학생 희망 대졸초임은 '2,500만원~3,000만원'이 44.3%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대학생들도 20.0%로 조사됨

## IV. 청년니트 확대의 파급영향

### 1. 사회적 비용 증대 및 국가경쟁력 약화

- 청년니트족 증가로 개인소득 감소 및 가계부담 가중
  - 청년구직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을 유예하지만, 이는 당장의 소득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취업상태 지속시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마저 얻음
  - 가구원 중 청년니트족이 생기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가구 소득원은 생계 부담 때문에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됨
- 정부 재정손실 및 국가경쟁력 약화
  - 청년니트족은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이런 유희인력 증대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초래
  - 특히 청년니트족 증대는 근로소득 과세대상 축소로 인한 세수감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까지 초래
  - 청년니트족이 미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경우 사회복지 재정을 증대시켜야 하는 등 재정악화 가속화 초래
  -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5% 정도 하락<sup>17)</sup>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질적인 실업상태라 할 수 있는 청년니트족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됨

### 2. 학교교육과 직업교육간 불일치로 숙련 노동인력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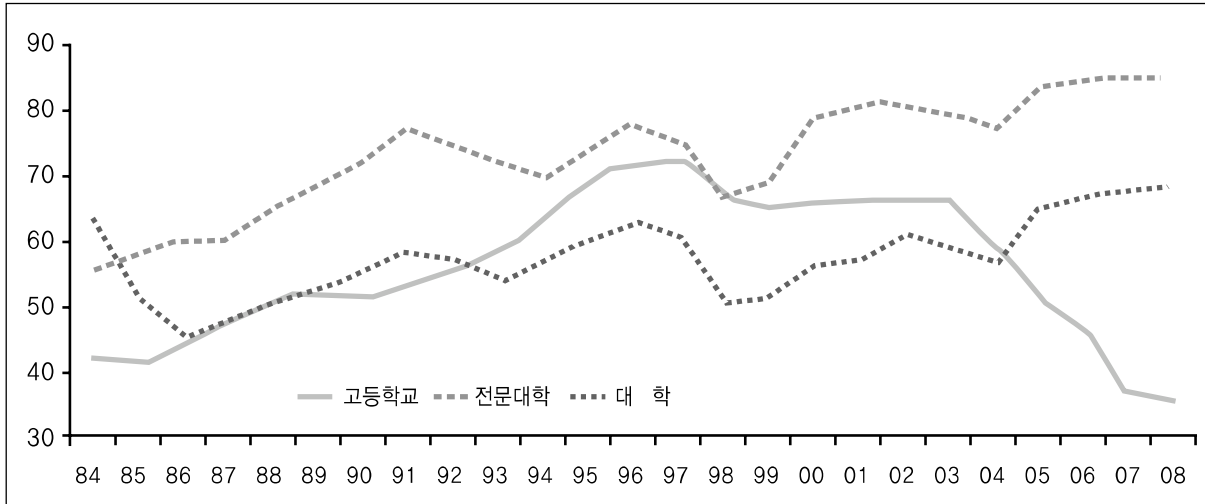
- 학교교육이 직업능력으로 연계되지 못해, 사회적으로 교육 투자비용 손실과 직업교육 재수행이라는 비효율성 초래
  -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고졸자 취업률이 대졸자보다 높았으나,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이 급등하고 이들이 하향 취업하면서 '04년 이후 고졸자 취업률이 대졸자에 역전당함

17)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 제한된 일자리 내에서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이 만성화되면 고졸 이하 인력이나 실업계고 출신 기능인력은 해당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기업은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재실시해야 하는 낭비 발생

< 학력별 취업률 추이 >

(단위 : %)



\* 주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생 수 - 진학자 수 - 군입대자 수) x 100  
 \*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9. 2

- 기업이 요구하는 적절한 기능인력 배출이 어려움
  - 제조업에 종사할 숙련·전문인력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니트족을 적절히 유인해 우수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칫 미래 숙련노동력 상실 우려
  - 대다수 중소기업은 생산·기능직, 연구·개발직, 현장기술직 등에서 인력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생산·기능직은 이직률도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 >

(단위 : %)

구분	사무 관리직	전문가	< 생산직 >			서비스직	판매 관리직
			기술직	기능직	단순노무		
인력부족률	2.27	5.74	4.53	5.58	4.62	2.61	3.22
이직률	11.9	12.6	15.6	21.8	25.0	14.9	14.7

\* 주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현인원+부족인원), 이직률 = 이직인원 / 현재인원  
 \* 자료 : 중소기업청, 2005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006

- 특히 임금구조상 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간 임금 차이도 커서, 생산인력 확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 &lt; 직종별 임금 비교 &gt;

(단위 : 천원/월)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1,901 (139.7)	1,667 (106.9)	1,361 (100)

\* 주 : 남성 20~39세 대상 정액급여 기준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3. 미래 중산층 붕괴 및 빈곤문제 야기

- 니트가 될 가능성은 부모의 소득규모나 학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니트족이 부유한 부모에 기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득규모와 학력의 양 극단에서 니트 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청년니트 가능성 관련 주요 연구결과<sup>18)</sup>**

- 아버지의 직종이나 고용형태도 자녀의 니트이행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아버지가 고용주인 고소득층이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가족종사자 같은 저소득층의 양극단에서 니트 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청년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으면 자녀가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학력자의 니트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빈곤 계층의 자녀도 니트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빈곤이 악순환될 수 있음을 의미
- 청년니트 문제는 미래 중산층 붕괴 및 빈곤층 확대와 연결
  - 과거에는 임금노동자가 중산층을 굳건히 지탱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임시·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비중 축소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규모는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빈곤층 비중은 '96년 11.2%에서 '07년 17.8%로 증가<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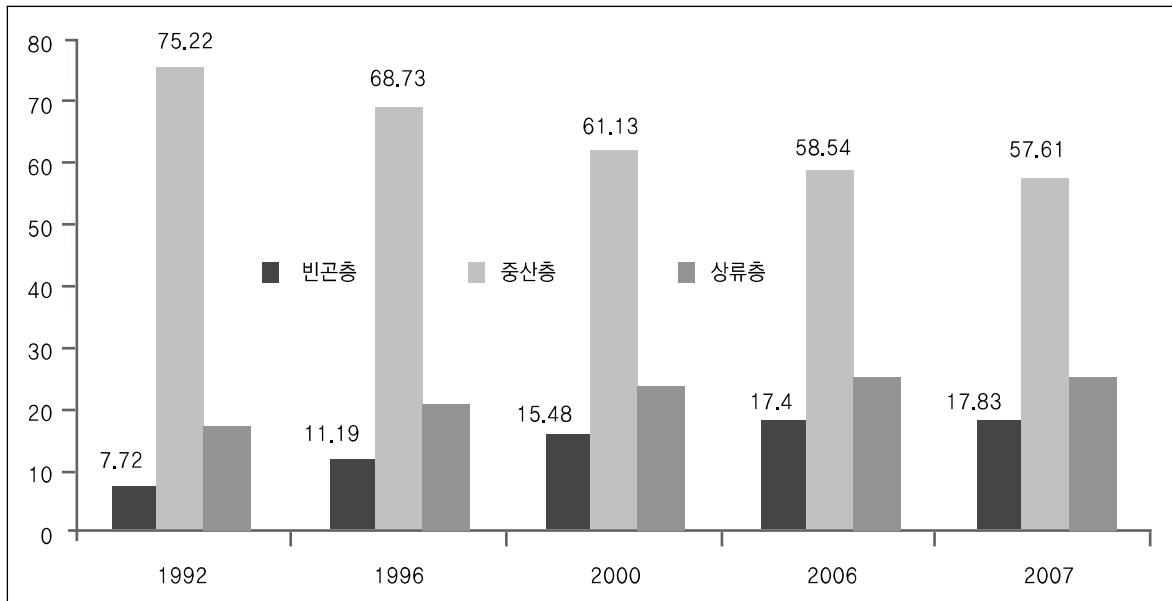
18)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니트족 실태조사 결과, 2007. 10  
 남재량,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 6

19) 유경준, 중산층 정의와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2008. 6  
 빈곤층을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 상류층을 중위소득의 150% 초과로 구분

- 특히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실업자를 의미했으나, 최근 근로빈곤층과 청년니트족 등이 확산되면서 신 저소득층, 신 빈곤층 등장
- 자발적 선택으로 청년니트족이 된 경우도 있으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소득 양극화로 니트에 빠지는 경향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시급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단위 :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2009



## V. 정책대응 방향

- 청년니트족은 곧 미래 빈곤층의 문제인 만큼 범정부적 대처 필요
  - 청년니트족은 미래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미래 중산층의 축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만큼, 청년니트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및 빈곤층, 노동부가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졸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을 실시 중이며, 이는 정책 대상의 명칭만 다를 뿐 대부분 청년니트족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음
- 부처별 청년고용 대책이 정책별 취지에 맞게 책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지원서비스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
  - 각 부처가 법과 예산을 통해 다양한 고용지원 대책을 설계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지원서비스센터는 인력·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

< 고용지원서비스 인력 및 예산 비교('06년 기준) >

구 분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직원 1인당 경찰인구 수(명)	8,199	442	457	405	2,133	2,217
고용지원서비스 예산/GDP(%)	0.03	0.23	0.27	0.37	0.03	0.1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2009. 4

- 스웨덴의 경우 고용청 소속 직업소개소(Arbetsförmedlingen)가 전국 325개 지역에 있으며, 구직자가 구직신청 후 평균 90일 이내에 구직에 성공
-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지원서비스센터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확인만으로도 힘겨운 실정이라, 선진국 수준의 구직자 대상 심층 면접이나 취업알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결국 중앙부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청년고용 대책들이 노동시장의 최일선 기관인 고용서비스센터에서 병목현상에 걸려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청년니트율이 실업률의 2~3배에 달하는 현상은, 기업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구인·구직간 인력수급 불일치 및 기대임금간 불일치 등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일치 현상의 극복이 시급하며, 학벌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틈이 되지 않도록 학교교육과 직업·직무 교육간 적합성 강화
- 그러나 근로자 일부에게만 국한된 고용안정성이나 생산성 초과 고임금 구조 등이 최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청년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가 가능
-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 등 고용 안정성도 낮고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제외된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의 고학력 구직자 흡수기능 강화

- 임금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유인하지 못한다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우수 중소기업 홍보 강화
  - 본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박람회('08.9.24)'처럼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에 대기업이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

□ 청년층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 보조지표 개발 검토

- 통계청의 청년층 실업률·고용률 수치나 부가조사만으로 청년층의 고용 현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통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예산 투입 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우려가 있음
  - '청년니트율'은 구직의사 유무나 구직노력 정도 등 통계화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식 통계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 청년층 인력수급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계·지표개발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청년고용대책의 수립 필요